

캐나다 협동조합 정책연구 및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보고서

'23. 6. 26.

협 동 조 합 본 부

순서

I. 출장개요	1
II. 방문기관별 조사내용	3
1.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CDRQ)	3
2. 학생주택 협동조합 지원조직 (UTILE)	8
3. 몬트리올시청 사회적경제과	14
4. 사회주택 지원기관 (Batir Son Quartier)	19
5. 지역개발 협동조합 (Petit Champlain)	26
6. 퀘벡주 경제혁신에너지부 사회적경제과	31
7. 퀘벡 협동조합 총연합회 (CQCM)	39
III. 시사점	48
IV. 첨부자료	50

I. 출장개요

출장목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정책 연구			
출장기간	2023.5.28.(일) ~ 6.4.(일), 6박 8일			
출장국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			
방문기관	날 짜		방문 기관	
	5.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CDRQ 방문 · 학생주택 협동조합 지원조직 UTILE 방문 		
	5.30.(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몬트리올시청 사회적경제과 담당 미팅 · 사회서비스(사회주택) 지원기관 Batir Son Quartier 방문 		
	5.3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지역개발) 협동조합 Petit Champlain 방문 		
	6.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퀘벡주 경제혁신 에너지부 산하 사회적경제과 미팅 · 퀘벡 협동조합 총연합회 CQCM 방문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외부기관 동행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급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급	배윤미	

※출장일정표

날 짜	시간	내 용
5.28.(일)	19:05 22:17	· 인천 출발 → 몬트리올 도착 (토론토 경유)
5.29.(월)	10:00	·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CDRQ 방문
	15:00	· 학생주택 협동조합 지원조직 UTILE 방문
5.30.(화)	10:30	· 몬트리올시청 사회적경제과 담당 미팅
	13:30	· 사회서비스(사회주택) 지원기관 Batir Son Quartier 방문
5.31.(수)	08:00	· (이동) 몬트리올 → 퀘백, 4시간
	14:00	· 사회서비스(지역개발) 협동조합 Petit Champlain 방문
6.1.(목)	11:00	· 퀘백주 경제혁신 에너지부 산하 사회적경제과 미팅
	14:00	· 퀘백 협동조합 총연합회 CQCM 방문
6.2.(금)	08:00	· (이동) 퀘백 → 토론토*
6.3.(토) ~6.4.(일)	14:00	· 토론토 출발 → 인천 도착(+1)

* 갑작스런 항공편 결항(퀘백-토론토 구간 전면 결항)에 따라, 도시간 육로 이동

II. 방문기관별 조사내용

1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CDRQ)



□ 기관개요

- 협동조합 (중간)지원센터 몬트리올 지부: CDRQ
 - CQCM(협동조합연합회) 산하 협동조합 지원센터로, 몬트리올·퀘벡·라발 등에 여러 지부가 있음. 협동조합 창업 지원부터 컨설팅, 재정지원(금융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중
- 주소지: 7000 Park Avenue, Suite 301 Montreal, Quebec H3N 1X1
- 연락처: 514. 448. 7668
- 홈페이지 주소: <https://cdrq.coop/>
- 면담자: Nada Elkouzi (Regional Director)

□ 주요 논의내용 및 질의응답

- (질의) 귀 기관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답변

☞ 처음 기관의 임무는 협동조합 개발, 즉 협동조합을 통한 상생과 공영(Common Wealth)이었음. 다만, 2020년 퀘벡 정부와 전략 재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의 미션이 보다 확장됨. 협동조합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

- (질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비영리 법인’이란 무엇이며,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개념 설명 요청)

답변

- ☞ Cooperatives 단어 대신 “Collective Enterprise” 용어 및 개념을 주로 사용함. ‘공동소유의 형태’로, 이윤이 ‘투자자에게 배분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성인 기업을 일컫는 말임
- ☞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는 크게 2가지 법에 의해 규정됨. (1) 비영리 법인법: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Enterprising non-profit)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 가능. (2) 협동조합 법: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법이며, 위의 비영리법인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두 축을 이룸. 특히, 각 주마다 협동조합 법이 있고, 연방 협동조합법은 복수의 주(2개 이상의 주)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대해 관할 함
- ☞ 또한,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용고 배당이나 수익의 활용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지만, Enterprising non-profit은 수익에 대해 100% 조직의 미션에 재투자 된다는 점임

- (질의)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서, 기관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 ☞ 우리 기관은 경제혁신부(Ministry of Economy Innovation)와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적 경제 액션 플랜에 따라, 퀘백의 22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셜 이코노미 허브기관들과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 하였음
- ☞ 파일럿 프로그램 중 ‘창업’ 관련 분야가 있으며, CDRQ와 사회적경제 허브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였음.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아이디어의 발전과 시장 진입 마케팅 관련 인큐베이팅을 지원. 특히, 법인을 설립하고 신고하는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지원
- ☞ 본 프로그램의 범위는 기관의 첫 번째 연차 총회(Annual Cycle meeting) 단계까지이며,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비영리 또는 협동조합을 운영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까지 점검해 줌. 2년 이후 성장단계에는 필요 시 다른 조직하고 연결해주고 있음

- (질의) 지원 대상 조직 중 협동조합과 비영리 조직의 비중은 어떠한가?

답변

☞ 비영리 법인의 비중은 10~15% 정도이나, 급증하고 있음. 15개의 CDRQ 활동 지역 중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6개 지역을 보면 새로운 비영리 조직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신설되는 5개 사회적경제 조직 중 4개가 비영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정도임

- (질의) CDRQ 운영의 중요 요소인,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가?

답변

☞ 90%는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10%는 서비스 제공 수수료 (인보이스 발행)를 받음

☞ 정부의 자금을 받는 이유는, 협동조합 발전에 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계약을 받았기 때문임. 5년 계약이며, 이 계약은 보통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 되어 있음. 정부와의 5년 계약을 통해 약 80% 지원받고, 나머지 한 타입의 자금은 정부가 올린 프로젝트 공고에 응모 및 선정되어 받은 금액으로 약 20%를 차지함. 몬트리올에서는 우리 지부(CDRQ 몬트리올)와 라발 사회적경제 허브가 공동으로 응모해서 선정되었음

- (질의)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상당한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인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가?

답변1

☞ CDRQ는 협동조합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조직임

☞ CDRQ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퀘벡 전역에 있는 CDRQ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 협동조합은 약 600개이며, 노동조합과 지원 조직, 사회적 금융 조직 등도 포함

☞ 이사회는 15개 의석이 있으며, 이 중 11개는 6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선출, 나머지 3자리는 노동자 중에서 선출, 마지막 한 자리는 사회적 금융 같은 지원 조직에서 선출됨. CDRQ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권한이며, 정부측 자리는 없음 ⇒ 즉, 정부와는 철저한 계약 관계임

답변2

- ☞ 2016년 정부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CDRQ 조직의 정비를 요구한 적이 있음. 이 때 흩어진 조직을 합병하는 등의 조직 재정비를 하였음 (11개 독립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일).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키워드는 ‘효율성’이었음. 즉, 다수의 CDRQ와 계약을 하기 보다는 1개의 본부와 계약을 맺는 시스템으로 변화
- ☞ 정부 기금 중 5~10% 정도는 대규모 자원을 가진 협동조합들(신협, 낙농업, 축협 등)이 출자한 기금으로 구성

○ (질의) CDRQ의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답변

- ☞ 5년간 약 2,462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집행 계약을 맺었고, 이 중 75% 정도를 CDRQ에서 사용함. 사회적경제 허브는 5년 동안 약 1,200만 캐나다 달러를 배분받음
- ☞ 협동조합 창업의 경우, CDRQ가 유일한 지원조직은 아니나 대부분의 지원 자금의 흐름은 CDRQ를 통해 흐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질의) CDRQ 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는 무엇인지?

답변

- ☞ Solidarity Cooperative* 중 순환경제를 하는 곳이 있음. 1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레스토랑이나 케이터링 업체와 협력하여, 재사용 가능한 금속 등의 식기를 제공하고, 이를 수거 및 세척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을 하는 곳이 있음
- * 사협과 비슷하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배당금지 여부는 선택 가능

○ (질의) CDRQ의 협동조합 창업 지원 이외 창업 이후의 후속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1

- ☞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우, 첫 번째 연차 총회 때까지 관여를 하는 것지만, 실제 CDRQ의 협동조합 발전 계약에 따른 역할은 그것보다 넓음
- ☞ 협동조합의 금융지원과 모니터링, 경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지션 지원 등이 있음

답변2

- ☞ 디지털 트랜지션 지원이라 함은, 온라인 마케팅 또는 업무 전산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CQCM을 통해 CDRQ로 내려옴. CDRQ는 컨설팅에 특화된 비영리 조직과 함께 디지털 트랜지션 지원을 분담함. CDRQ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 업체를 찾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
 - ☞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금*이라든가 재단 등의 정보를 찾아 수요자와 연결 해주는 역할을 담당
- * RISQ, 데자르덴연대경제금고, 데자르덴캐피털, 상띠에신탁기금, 휘드시에 등

○ (질의) 스타트업(Start-up) 이후의 협동조합 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답변

- ☞ 정부의 자원은 스타트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편으로, 그 이후 단계에서는 재원을 가진 다른 기관을 연결해주고 있음(각 섹터별 연합회 또는 다른 지원기관들을 연결해 줌)

2

학생주택 협동조합 지원조직(UTILE)



□ 기관개요

- 학생주택 협동조합 지원조직: UTILE
 - 2013년 학생 주거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주택 (학생주택) 지원기관
- 주소지: 460 Sainte-Catherine O bureau 209, Montréal, QC H3B 1A6
- 연락처: 438. 933. 8381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utile.org/>
- 면담자: Laurent Levesque (Directeur general)

□ 주요 논의내용 및 질의응답

- (질의) 학생 주택 지원기관을 설립하게 된 계기

답변

☞ UTILE은 약 40년간 지속된 학생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설립함. 공공부문에서의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거나 부족하고, 민간 시장에서의 공급은 비싸며, 그 중간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특히 학생들)의 소득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질의) UTILE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 ☞ UTILE은 정부 지원 없이, 철저하게 학생 주도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독특함. 탑 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대학교와 공동으로 학생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럽과의 큰 차이점임

○ (질의) UTILE이 추진한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답변

- ☞ UTILE의 첫 번째 프로젝트은 “우드노트 협동조합(Woodnote)”으로, 2020년에 조직을 설립하고, 학생 주택을 협동조합(또는 사회적 경제) 형태로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엄청 노력한 사례임
- ☞ 두 번째 프로젝트는 브로드방(‘나침반’이라는 뜻)이라는 프로젝트로, 2022년에 본격 추진함. 위 2가지 프로젝트 모두 정부의 도움이 거의 없이 추진했음
- ☞ 가장 큰 투자 규모는 학생회(학생 그룹)이며, 두 번째로 큰 투자는 사회적 금융, 특히 샹띠에 신탁기금임. 마지막으로 몬트리올시로부터의 소액 지원 및 연방 정부의 소규모 금액 지원이 있었음
- ☞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인 학생회가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시작한 것이며, 그것을 보고 처음에 지방자치단체(몬트리올)이 지원을 하고, 그 위에 캐나다 연방 정부까지 차례대로 합류하게 된 형태임

○ (질의) 정부로부터의 지원 없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 온 것이 매우 매력적임. 정부의 반응은 어떠한가?

답변

- ☞ 위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통해, 정부나 대학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
- ☞ 학생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 특히, 한 번 투자하면 지속가능성이 있는 매우 좋은 모델임을 인지하였음
- ☞ 그로인해 현재 4개시에서 약 2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개는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10개는 시행 단계에 있음. 아직 공사 착수는 아니나, 계획안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단계임

- (질의) 한국의 경우처럼, 학생 대상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는 기존의 렌탈 마켓으로부터의 저항은 없었는지?

답변

☞ 아직까지 없었음. 추측하는 이유로는, 임대인들이 아직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또한, 전체 렌탈 시장에서 해당 부분은 매우 작기 때문 (전체 600unit에 불과함)에 기존 임대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질의) UTILE 직원 등 내부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

☞ UTILE의 시작단계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열망만 가진 학생들로 몇 안되는 자원 봉사자들로 시작함

☞ 그러나 지금 현재 UTILE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직원은 약 30명의 전문 인력이며, 이 중 다수의 직원들이 부동산 시장(Private Sector)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자들임

☞ UTILE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면서도 본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킨다는 점에서 보람을 많이 느껴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상태

- (질의) 초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한 것인지?

답변

☞ 초기 UTILE은 3명의 직원을 모두 Full-time으로 근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여건도 되지 않았음. 당시 정부는 UTILE이 제안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거의 없었음. (다만, 사회 혁신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 정도만 있는 상태) 이때, 사회적경제 지원 시스템 (Social Economy support system)을 적극 활용함

☞ 이때 활용한 Funding Source는 크게 3가지

- (1) RISQ(퀘백사회적경제투자네트워크)의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를 활용,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로, 담보없이 대출해주는 자금(Risky) 성격을 지님
- (2) CEDEC(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지역개발공사)을 활용하여 무료 사무실과 보조금(grant)를 받음 * 현재는 폐지됨
- (3) 마지막은 학생회 그룹(자신)

☞ 위 방식은 본 프로젝트가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주요 수단임

- (1) 펀딩이 Bottom-up 방식, (2) 정부자금과 약간의 거리가 있음

- (질의) UTIL의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답변

- ☞ 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은 크게 2가지
 - (1) 학생회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으로, 처음 투자를 해준 곳은 콩코르디아 대학교임. 그간 이월 및 주거되어 있던 학생회비 적립금 중 약 180만 달러를 투자해주었음
 - (2) 멤버십: UTILE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주요 멤버는 학생회와 대학교로 구성됨. 약 30만명의 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UTILE의 지배구조에 주요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 위 2가지가 UTILE 모델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핵심 요소

- (질의) 학생주택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 시켰는지?

답변

- ☞ 퀘백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택의 대상을 가족 단위,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이야기함. 학생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
- ☞ 이를 설득하기 위해,
 - (1) 사회적 주택을 학생들에게 공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대학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수요 대비 늘지 않는 공급에 따라 임대료 증가, 젠트리피케이션 등 전체 주거 시장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임
 - (2) 학생 전용 주거 공급의 긍정적 효과: 외부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특히 4년 이상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주거 문제가 개인이 아닌 제도적이고 집단적으로 해결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음

- (질의) UTILE 프로젝트의 특성은 무엇인가?

답변

- ☞ 보통의 기숙사는 방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고, 주방을 여럿이 공유하는 스타일이 많으나, UTILE은 한 Unit에 화장실 및 주방을 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 공간을 확보
- ☞ 이러한 Unit이 건물당 100~200개 배치, 스튜디오 형태부터 4Bedroom까지 있음
- ☞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2,000개의 유닛을 진행 중. 몬트리올-퀘백-셀브루크-트아리비에 순으로 진행 중임

○ (질의) 프로젝트 시행의 우선순위가 있는건지?

답변

- ☞ 몬트리올과 퀘벡에 많은 이유는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펀딩(자금)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가 핵심임
- ☞ 학생 주택 프로젝트는 사실 정부 펀딩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정부로부터의 펀딩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실적이 있어야 함. 즉, 첫 시작 단계부터 정부 펀딩이 가능하지 않고 다른 펀딩이 있어야만 정부로부터의 펀딩이 가능한 길이 열림(Woodnote 사례의 경우처럼)
- ☞ 이를 '순환 출자 펀드'라고 할 수 있음.
즉, 학생회에서는 UTILE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푸시 펀드라는 기금을 만들고, 이 푸시 펀드에서 UTILE에 대출을 해줌 → 프로젝트 완수하고 세입자들로 부터 렌트비가 들어오면 푸시 펀드에 먼저 상환 → 푸시 펀드 기금은 설립 목적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어 다시 학생 주거 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형태

○ (질의) 현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은 무엇인가?

답변

- ☞ 20%는 각 정부 보조금(몬트리올시, 주정부, 연방정부 등)
60~70% 일반적인 모기지론(대출),
10~20% 상띠에 신탁기금(인내자본 형태, 최대 15년까지 원금상환 미룰 수 있음)
- ☞ 상띠에 신탁기금의 최대 금액 이상이 필요한 경우, 특수 목적 기금을 별도로 설립하여 자금 조달
* 상띠에와 UTILE이 협력하여 FILE(필)이라는 기금을 새로 만들. 이 기금 역시 인내자본 형태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금융 안정성이 더욱 강화됨)

○ (질의)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 ☞ (1) 학생이어야 함, (2) 파트너십 맺은 학교의 학생(콩코르디아 대학 학생회와 파트너십으로 만든 Woodnote는 콩코르디아 학생이어야 함), (3) 수용 규모보다 희망자가 많은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순위 부여
- ☞ 임대기간은 3~4년으로 졸업할 때 까지이며, 시장 평균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 책정함
- ☞ 입주 경쟁률은 4:1 정도이나, 실제로는 더 높음(입주 가능한 물량의 4배가 신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접수를 마감함)

○ (질의) 입주 학생들의 주요 활동(Activity)는 무엇인가?

답변

- ☞ 입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터디룸 및 이벤트룸 제공
- ☞ 또한, 학생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스텝이 있음. 학생들이 원하는 이벤트 외에도 입주자의 권리에 대한 트레이닝,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도 제공
- ☞ 현재 스텝 운영비는 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로젝트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상시 고용 인원을 확충할 계획임

○ (질의) 학생 주택 부지 확보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 ☞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 부지를 우선 고려. 기존 건물을 구입하기 보다는, 땅을 사서 신축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기존 건물 매입 시,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야 하므로)

○ (질의)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리스ٹ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 ☞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UTILE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높아져 대출받을 때 레버리지 운용 가능한 자금이 늘어나는 효과 기대
- ☞ 부동산 가치 하락할 경우: 이미 저가로(평균 이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렌트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일반 민간 시장과의 차이점)

○ (질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 확보 노력으로 무엇이 있는가?

답변

- ☞ (1) 프로젝트 증가에 따라 운영 수입이 늘어나면, 일반 대출 시장으로부터의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 출자 요청 대상의 다각화도 시도 예정: 재단법인 등과 접촉하여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 예정, 장기투자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과도 접촉 예정
- ☞ UTILE이 단순히 싼 임대료의 주거를 제공해주는 임대업자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라는 인식 ↑



□ 기관개요

-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 정책 담당
- 주소지: 700, De La Gauchetière Street West, 28e floor. The metro station Square Victoria
- 홈페이지 주소: <https://ville.montreal.qc.ca/economiesociale/>
- 면담자: Cécile Vergier (Economic Development Commissioner)

□ 주요 논의내용 및 질의응답

- 퀘백의 사회적 경제 현황

- ▶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법인(Non-profit)으로 구성
- ▶ 2016년 통계 편람(가장 최신 버전)에 따르면, 11,200개의 회사, 478억 달러의 수익, 22만 명의 고용인구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 종사 중
- ▶ 이 중 1/4인 약 2,780개가 몬트리올에서 활동, 고용 인구는 6만 7,680명, 117억 달러의 수익을 차지
- ▶ 73%는 비영리 법인 형태이며, 27%가 협동조합 형태
- ▶ 주거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주택 분야 조직이 높은 비율

○ 몬트리올의 경제 정책 현황

- ▶ 몬트리올은 인구 200만 보유 도시로, 19개 행정구역(구청)으로 구분
- ▶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분권화가 되어 있음
- ▶ 시의 경제발전 정책으로는, 6개의 중소기업지원센터(PME)가 있고, PME가 각 지역을 관할하면서 사회적경제 및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등을 담당
- ▶ 현재 소속부서는 '경제개발부, 부동산부, 국제관계부, 구매부'가 하나로 묶여있는 형태: Economic Influence department
- ▶ 다른 부서로는 주민 관련 서비스, 삶의 질 관련 서비스, 사회통합, 도시 안전 분과 등

○ 몬트리올의 사회적경제

- ▶ 현재 사회적 경제 담당은 '경제 발전 분과'에 속해 있음
- ▶ 사회적 경제가 복지나 빈곤과 관련된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는 것이 이 조직도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

○ 몬트리올시청의 역할

- ▶ 시청과 각 구청의 권한 분담이 많음
 - 구청에서 각종 허가, 규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음
- ▶ 시청에서는 창업 지원 등 기업 지원 부분은 PME를 통해 많은 부분을 위임해서 추진하고 있음
- ▶ 즉, 시청은 '자원 배분 정책'과 같은 기능에 집중
 - 자원 배분을 위해 프로젝트 제안서를 공모·권고·심사
 - 현장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그램 운영(최근 '순환경제'에 대한 어젠다에 집중)
 - 주거분과하고도 많이 협력하고 있음. 사회적 경제를 위해 자원 배분 등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지원할 것인지 논의
 - 주거(하우징) 부분이 몬트리올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

○ (질의) 몬트리올시의 정책 방향을 이끄는 원칙·기조는 무엇인가?

답변

☞ 가장 확실한 정책 기조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들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임

○ (질의) 몬트리올시의 정책 실행 방법론은 어떤 것인가?

답변

☞ '협력기관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함
- CDRQ(협동조합 지원센터), 엑스플라나드(소셜 임팩트 지원), 레저 코업(노동자 협동조합 지원), CESIM(사회적 경제 허브 지원) 등
-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아젠다를 위의 각각의 외부 조직들과 협력해서 추진

☞ 두 번째 주요 방법은 '컨설팅의 역할'임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자체의 정책 집행과 운영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고, 그것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질의) 컨설팅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답변

☞ 몬트리올의 사회적 경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CESIM과의 협력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음. CESIM과 3년 단위로 계약 맺고 관련 업무를 위임함. CESIM은 몬트리올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성을 갖는 대표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일종의 상공회의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정기적으로 CESIM과 상호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3년 단위 계약 건 외에도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 시 CESIM과 협력함. 펀딩(자금) 배분에도 CESIM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음

○ (질의) 몬트리올시청의 사회적 경제 지원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

답변1

☞ 2005년 사회적 경제 비전이 몬트리올시 경제 발전에 대한 공공정책 부분에 공식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

☞ 2009년부터는 공공정책이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융합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들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함

답변2

- ☞ 2018년~2021년에는 몬트리올시의 새로운 실행 계획에서 사회 혁신이 지원이 공식적으로 시작됨
- ☞ 3년 단위 정기 계약으로 '사회 혁신 실천 전략'을 수립해 왔으나, 2021년 1차 종료 이후 2차에 대한 전략을 코로나로 인해 수립되지 못했음. 대신, 비상 실행 계획 체제로 전환됨
- ☞ '사회 혁신'이라는 키워드에서 팬데믹 이후 '사회적 경제'에 조금 더 집중 하자는 기조로 전환이 되었음(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
 - 2018년 첫 전략 수립 시에는 '혁신'에 방점을 두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추진해왔음. 비콥을 한다든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등. 그러나, 팬데믹 이후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게 되었음

○ (질의) 몬트리올시의 예산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답변

- ☞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의 문제에 대해 '얼만큼 사회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사회 혁신적인 모델을 창조'하는 데에 있음
- ☞ 두 번째,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 500만 달러 배정되어 있음
 - CESIM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도와주는 조직을 통해 집행되는 금액
- ☞ 세 번째, PME 몬트리올을 통해 배분되는 금액에 대한 관리임. 기관별로 약 5만 달러까지이며, 연간 약 800만 달러까지 지급될 수 있음
 - 최근 팬데믹 이후, 건물 임대료 등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몬트리올 시내에서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쓰임

○ (질의) 자금 지원 시, 보조금 형태인지 대출형태 인지?

답변

- ☞ 커뮤니티 채권 프로그램이라는 형태가 있으나 아주 소액임(클라우드 펀딩 등 형태로, 대출을 해주고 회수하는 방식). 그 외에는 대부분 보조금 형태의 지원임
- ☞ 사회적 금융 섹터의 많은 프로그램이 이미 대출 형태로 잘 운용되고 있어서 몬트리올시에서 직접 대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음

○ (질의) 몬트리올시의 시정 기조는 무엇인가?

답변

- ☞ 녹색 경제로 생태적 전환을 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조금 더 참여적·민주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임
- ☞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 역할은 다른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자(인터미디어리)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질의) 몬트리올시청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호 작용 방법은?

답변

- ☞ 시청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음. 현장 조직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논의를 하고, 지원금을 배부하는 행위는 CESIM과 PME 몬트리올 같은 지원기관의 역할임
- ☞ 내년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조금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증가할 것이라 예상

○ (질의)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 창업 이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답변1

- ☞ 성장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지원이 있음. 다만, 그러한 지원은 모두 PME 몬트리올을 통해서 진행됨
- ☞ 예외적으로, 레저 코업이라는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창업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직접 지원하고 있음
- ☞ 사실, 몬트리올시도 규모화 단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음. 현재 기획하고 있는 내용은
 -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를 시청이 사전에 제공 →
 - (2) 수립된 경영전략에 근거한 실행계획을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청에 제출 →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보조금 지급 하는 형태- 성장 단계 조직이 대상이므로 규모는 약 25만 달러 상한을 두고 운영할 계획
- ☞ 이 외에,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INNOGEC'이라는 퀘벡 주정부 펀딩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음. 몬트리올시는 PME 몬트리올에 지급하는 예산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INNOGEC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4

Batir Son Quartier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 기관개요

- Batir Son Quartier :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주택(커뮤니티하우징) 지원기관으로, 40년 역사 보유, 약 50명이 근무하고 있음(스텝 부서와 개발단계 등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
- 주소지: 2155, rue Saint-Patrick Montréal (Québec) H3K 0B9
- 연락처: 514. 933. 2755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batirsonquartier.com/>
- 면담자: Edith Cyr (Directrice generale)

□ 주요 논의내용 및 질의응답

○ 기관 소개

- ▶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40년 역사를 보유, 약 50명 근무 중
- ▶ 스텝 부서와 개발단계 등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 기관의 주요 미션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과 그것을 실현하는, 두

영역을 잇는 곳으로, 필요한 기술과 재정 등 여러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것

- ▶ 주요 고객은 저소득층, 자발성을 잃은 사람(노숙자 등), 혼자서 움직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이며, 이들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 커뮤니티 조성,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이벤트 개최 등을 지원함

○ (질의)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설명 요청

답변

- ☞ 리노베이션, 신축, 재활용 등 건물이나 공장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작업함. 여러 종류의 주택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만 5천채의 주택 개조 작업 및 600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 ☞ 퀘백의 재정이 많지 않아, 매년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수는 달라짐. 재정 관련하여 민간 투자자, 투자공사, 인내 자본 등과의 파트너와 협력함

○ (질의) 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어떠한가? 자금 지원이 있는가?

답변

- ☞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당해연도 주택의 필요량과 금액을 산출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절반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 줌.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프로젝트 실행이 턱 없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음
- ☞ 보통 주정부와 연방정부 대상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요청함. (현재 13개 프로젝트 진행 중) 다만, 프로젝트 진행 시 정부의 진행은 매우 느린 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곳과 협력하여 재정(금융)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 (질의) 프로젝트 진행 시 비용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답변

- ☞ 총 3가지 비용이 있는데, (1) 전체 프로젝트를 위한 총 금액에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2) 프로젝트가 실행된 다음에는 환경이 어렵거나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이 있음. (3) 마지막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가정 폭력 가정에서 나온 자녀, 지불 능력이 전혀 없는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숙소 제공이 있음. 그 외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전체 집세의 25%를 내야 함

○ (질의) 사회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답변

- ☞ 보통 방 2개짜리 방이 600~800달러 수준이며, 이 금액의 25%를 내는 것임. 25%는 Maximum 수준이고, 개인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서 더 적게 내는 사람도 있음
- ☞ 시나 구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주택에는 OLH나 HLM 등이 있는데, 여기도 임대료를 25% 수준만 지불

○ (질의) 퀘백의 사회적 주택은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

답변

- ☞ 퀘백의 사회적 주택은 크게 공공주택과 커뮤니티 조직에서 관리하는 주택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공공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택이고, 커뮤니티 조직은 다시 2가지 종류로 나뉨. 협동조합(주택 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택으로 나뉨
- ☞ 공공주택과 커뮤니티 조직 관리 사회적 주택은 정부 보조금이 다르게 적용됨.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조직이 관리하는 사회적 주택에 적용되는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청(City)임. 특히, 주 정부 지원이 핵심임
- ☞ 그러나,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기관은 여전히 연방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청에 프로젝트를 지속 제안하고 있는 상황임
 - * HLM 이라는 공공주택의 경우, 예산이 점차 줄어 현재는 거의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해당 입주자들은 임대료 전액(25%)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질의)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

답변

- ☞ 정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의 문제점이 매우 큼(혜택을 보는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
- ☞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1백만 달러가 필요한 경우, 정부 보조금이 70%뿐이면 나머지 30%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련해야 함
- ☞ 때로는 70%에 대한 지원조차 100%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이럴 경우, 60%만 지원 받고 나머지 10%에 대한 금액은 인내자본을 통해 확충함

○ (질의) 주정부의 프로젝트 공모 시 경쟁률은 어떠한가?

답변

☞ 경쟁은 거의 없음. 그 이유는, 테크닉 지원 그룹인 GRT그룹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할 때, 이미 그 지역에 비슷한 커뮤니티 조직이나 사회적 주택 단체가 유사한 프로젝트를 계획/시작하였다면 GRT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음. 대신,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다시 프로젝트를 추진

○ (질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는지?

답변

☞ 몬트리올에는 주거 관련 비영리 조직들, 그리고 그들의 연합회가 있으며, GRT라는 테크닉 서포트 그룹이 있음. 두 조직은 항상 '어떻게 협력해서 주택 개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경쟁을 피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함

☞ 예를 들어, 어떤 비영리 조직이 성장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시작하고자 할 경우, 두 조직 간 해당 프로젝트 진행(땅을 산다든지)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므로, 이런 경우는 절대 피하고자 함

☞ 즉, 비영리 조직 연합회와 GRT는 항상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율하고 협력하는 관계임

○ (질의) GRT(테크닉 지원 그룹)이란 무엇인가?

답변

☞ 퀘벡 전역에 25개의 GRT가 활동하고 있으며, 모두 사회적 경제 조직임. 이들의 주요 미션은 '사회 주택 활성화'임

☞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 수행. 사회주택의 필요와 수요, 세부 요구사항, 건설 방법과 장단점, 소요 예산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함

☞ GRT의 주요 파트너는 시청, 주정부, 작은 커뮤니티 조직 등이며, 여러 가지 사회주택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과 상호작용함. 정부는 GRT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주택 발전 및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미션을 부여하였음. (단,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없는 상태)

- (질의) 사회적 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국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 등이 존재함)

답변1

- ☞ 사회적 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노숙자가 입주하는 것에 대해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음
- ☞ 따라서 우리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시키고, 사회주택이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하고 있음.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룹을 모아서 만나기도 함. 때로는 그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해주고 사소한 질문이라도 대답해주고 있음

답변2

- ☞ 특히, 현재는 우리 모두가 굉장한 주거 위기(부동산 가격 급증 등)를 겪고 있어서 사회적 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굉장히 높은 편
- ☞ 예를 들어, 수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해나가는 솔루션을 찾게 도와주고 그들이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줌. 이러한 노력들이 '이웃, 공동체'로서의 삶의 실현이라고 설득함

- (질의) 사회적 주택 입주 기준은 무엇이며, 주요 특징은?

답변

- ☞ 공공주택과 커뮤니티 조직 관리 주택에 따라 다름. 공공주택은 제도와 법 조항에 근거한 '규정'이 있어 규정에 따라 입주함
- ☞ 커뮤니티 조직 관리 주택의 경우, 서류를 받고 직접 인터뷰를 실시함
- 1) 원하는 방의 크기, 2) 입주예정자의 총 수입원, 3) 현 주거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운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사회적 주택은 '공동주인 체제'로 운영되며, 그들이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에도 기여함. 공동으로 운영되는 사회 주택은 지역 경제와 지역의 건전성·건강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질의) 사회적 주택이 이렇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 ☞ 사실 정부 예산의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1개의 프로젝트도 겨우 추진한 경우도 있었음. 이런 어려움을 무사히 이겨내고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택 관련한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
- ☞ 지역의 주거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조직 네트워크가 있고, 그 위에 시, 주 단위의 네트워크가 있음. 도시별로도 지역 연합회, 시 연합회, 지역 연합회의 총 연합회 등 연합회들도 굉장히 촘촘히 조직되어 있기 때문 이라 생각

- (질의)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주택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 ☞ 퀘벡도 한국과 유사하게 처음에는 사회적 주택의 개념보다는 공공주택 개념만 있었으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회적 주택을 위한 커뮤니티 조직을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음(GRT조직과도 연계할 것을 제안)
- ☞ 추측컨대, 한국의 집 문제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그 부분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이외 대상까지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정부와 민간의 컨센서스가 충분히 있지 않은 단계라 생각됨)
- ☞ 특히나, 캐나다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접목시키거나 응용하기는 어려울 것. 한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주택이 개발·발전 되어야 할 것임

- (질의) 사회주택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1

- ☞ 사회주택의 소유권은 우선 본 법인이 소유하며, 신청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정 기간(평생 또는 몇 년간) 임대하는 방식임.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사람에 재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 커뮤니티 조직의 사회 주택이 경우는, 비영리 조직(샤팜, 라트라베이스 등)이 사회 주택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유주이며, 그 조직이 사회주택의 주인으로서 계약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방을 렌트해줌

답변2

- ☞ 임차를 하는 사람들은 비영리 조직의 회원이 되어서 비영리 조직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참석하는 활동을 하며,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구조로 운영
 - ☞ 만약 협동조합 형태라면, 각각의 세입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해당 조합원은 당연히 1인 1표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음. 출자금은 보통 100달러 정도를 내는 편임
 - ☞ 즉, 사회 주택을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이 운영자이자 임대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과 여러 가지 투자, 대출을 통해 방이 많이 있는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지어서 소유하는 형태임
- * 단, GRT는 소유주가 될 수 없으며 시행사 역할만 수행

○ (질의) 최근 수행한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 ☞ 몬트리올시에서 어떤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에 참여하라는 공고가 떴음. 해당 공고를 보고 '라트라맥스'라는 비영리 조직이 연락을 해왔고, 함께 서류를 준비해서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제안하였음. 우리는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 현재 '라트라맥스' 주체로 공모사업의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 * 이 경우, 땅이나 건물 등에 소유권은 라트라맥스가 갖게 되는 것

○ (질의) 또다른 사례가 있는지?

답변

- ☞ 시민들로부터 사회주택을 짓고 싶다는 연락이나 질문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샤팸이나 라트라맥스 등)을 연결시켜주고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 ☞ 몬트리올시는 사회주택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라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편

5

Petit Champlain (지역개발 협동조합)



□ 기관개요

- Petit Champlain : 지역개발 협동조합
 - 개척자 프랑스인(샹플랭) 마을로, 1985년 지역 공예가들과 관광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상가 협동조합
- 주소지: 61 Rue du Petit Champlain, Québec, QC G1K 4H5
- 연락처: 418. 692. 2613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quartierpetitchamplain.com/en/about/>
- 면담자: Carolanne Fournel (Director of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 주요 논의내용 및 질의응답

- 기관 소개 및 역사

▶ Petit Champlain(쁘띠 샹플랭)은 '보통 동네'라는 의미. 1985년 설립되었으며, 당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버려진 폐가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이 살며, 범죄의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지역이었음

- ▶ '자크 블루아'와 '잭 파리스'라는 두 사람이 지역을 살려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근처 가까운 '플라스 루아얄'이라는 지역의 재개발이 추진(시 예산 확보라는 든든한 재정 지원을 통해 새로운 고급 건물을 지을 예정 등)
- ▶ 위 두 사람은 예산이 조금씩이나마 확보될 때 마다 기존 건물을 하나씩 보수해 나가는 방식으로 현재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
- ▶ 조금씩이나마 건물을 보수하고 개선해 나감에 따라, 예술가 또는 공예품을 제작·판매하는 장인과 상인들이 하나씩 1층에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됨
- ▶ 입주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1인 규모의 영세 상인이었지만, 1985년 그 상인들이 처음으로 모여 회의를 개최함 ⇒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소유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당시 데자르댕에 지원 요청을 하여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함
- ▶ 그 당시, 협동조합이 25개 빌딩을 구입해서 임대 ⇒ 현재는 총 35개 건물 중 27개를 협동조합이 소유 및 임대하고 있음

○ (질의) 조합 설립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답변

- ☞ 조합 설립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Covid-19
- ☞ 어렵고 힘든 팬데믹 시기 중에도 협동조합을 통해 그동안 활동 해왔던 연대 공동체 의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음. 특히, 금융 측면에서도 상부상조 할 수 있었음. 다른 지역의 중소 상인들에 비해 상당히 잘 버텼다라고 자평함
- * 현재 공식 2곳이 있지만, 이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지 Covid19 등의 위기로 인한 것은 아님

○ (질의) Covid-19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낸 것인지? (ex. 임대료 절감 등)

답변1

- ☞ 우리 협동조합에서 그동안 적립해왔던 내부 자원들을 활용함.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때 약 1년 동안 아예 가게를 열 수 없었던 기간도 있었는데, 이 때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시행함

답변2

- ☞ 이후 6개월은 20%, 그 다음 6개월은 25%, 그 다음 6개월은 50%, 이런 방식으로 임대료를 회복해 옴. 이 방식은 그간 협동조합으로서 상당히 잘 관리·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
-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이 임대료 명목으로 배부되었고 이를 개인 회원조합에게 지급하였음. 업종 차이로 인해 보조금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조합원들이 내는 렌트비가 0(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50% 지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50%를 받지 않는 방식

○ (질의)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협력 관계는 맺고 있는가?

답변

- ☞ 여러 가지 협력 및 지원을 받고 있음. 오래된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 동네 가꾸기와 같은 미화 사업, 비수기(10월~12월) 극복을 위한 프로모션 및 마케팅 활동(방문객에게 무료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음
- ☞ 시나 정부는 우리 협동조합이 45명의 상인 회원들이 모여 공동의 의사 결정을 하고, 공동체로서 사업 운영을 잘 해가는 모델로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질의) 맨 처음, 이 지역 상가를 재개발 할 당시에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지역은 재개발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음. 플라스 루아얄 지역의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만 있었고 따라서 배정된 예산 규모는 매우 작았음
- ☞ 그러나 1985년 한국의 군항제처럼 큰 규모의 축제가 열렸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상인들이 모여서 지역을 살리자는 의견을 모았음. 이를 위해, 건축 전문가인 ‘블루아’와 ‘파리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었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많이 받아왔음

○ (질의) 조합원 구성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 출자금은 1만 1천 달러이며, 1년에 1천불씩 11년동안 분할하여 출자금 납입함.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지역 상인들이며,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로 들어와서 조합원이 아닌 상태로 지내는 기간은 약 1년 정도

- (질의) 1985년 이전부터 살고 있던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없는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없는지?

답변

- ☞ 당시 살고 있던 주민 중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쫓겨난 사람은 1명도 없음
* 다만, 1층에 거주 중이던 사람에게 이 쪽에서 장사를 해야하므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여 일부 옮긴 경우는 있음
- ☞ 퀘백은 기존 거주자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정부 정책상 굉장히 까다로워서, 오히려 주변 시세에 비해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주 중임

- (질의) 협동조합 적립금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답변

- ☞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세입자 자신이므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싶어 함. 따라서 협동조합 내에 적립금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님. 즉, 협동조합이 이익을 많이 가져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
- ☞ 그동안 쌓아왔던 적립금은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활용되었고, 현재 잔액이 많지 않으니 다음 연차총회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해 렌트비를 조금 증액하는 것을 고려 중
- ☞ 적립금은 주로 건물 보수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적립금을 보다 충분히 모아 우리 조합의 소유가 아닌 다른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질의) 혹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답변

- ☞ 정부로부터 보수, 복구, 마케팅, 관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1) 보안 강화, (2) 식당이 많지만 가까이에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것. 즉,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슈퍼 등을 설치하는 것에 정부가 관심을 두었으면 함

- (질의) 매력적인 사례인데, 타 지역에서 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찾아온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확산 사례도 있는지?

답변

- ☞ 미국 등 협동조합 섹터에서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찾아와서 견학하고 갔으나, 이 사례가 재현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우리 협동조합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지역 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임

- (질의) CQCM이나 협동조합 생태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답변

- ☞ CQCM 또는 업종별 연합회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음. 다만, 르콘소시움과 같이 법률, HR, ERP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종종 지원을 받고 있는 편



□ 기관개요

- 퀘백주정부 경제혁신 에너지부 산하 사회적경제과
- 주소지: 710, place D'Youville, 7e étage, bureau 7.26 Québec (Québec) G1R 4Y4
- 연락처: 418. 691. 5698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economie.gouv.qc.ca/objectifs/informer/entrepreneuriat-collectif>
- 면담자: Julie Chartrand-Beauregard(Conseillère en Entrepreneuriat collectif), Melanie Dumont(Conseillère émérite en Entrepreneuriat collectif)

□ 주요 논의내용 및 질의응답

- 퀘백의 사회적 경제, 그리고 기본법의 역사 소개

- ▶ 퀘백은 그간 협동조합 섹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왔고, 사회적으로 협동조합이 활동한 지 한 세기를 넘어가고 있음
- ▶ 1996년, 실업 문제와 재정 문제 극복을 위한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
- ▶ 회의의 결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정부의 첫 번째 액션 플랜이 실행

▶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상떼에, CQCM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함

○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필요성과 목표

▶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지원 방법'이기 때문

▶ 제정 당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주요 목표는

- 1) 사회적 경제가 퀘백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2)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수단을 기획·조정하면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
- 3)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필요한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사회적 경제 정의와 목적

▶ (정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제 활동. 특히, 경제 활동 중에서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기관의 경제 활동, 그리고 6개의 사회적 경제 주요 원칙에 입각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경제 활동을 의미

▶ (목적) 금전적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경제 조직의 내부 회원 또는 지역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퀘백 사회적 경제의 6가지 원칙

- 1) 소속회원 및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할 것
- 2) 조직의 의사결정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일 것
- 3)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 4) 조직이 경제적인 타당성을 달성하고 있거나,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 5) 이익 배분 시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 내부 회원들이 조직과 한 거래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그 외에는 이윤 배분 금지
- 6) 어떤 이유로든 법인이 해산될 경우, 일반 사기업이 아닌 비슷한 사회적 미션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에 인수되도록 할 것

○ 사회적 경제법에 명시된 부처의 역할

- 1)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의 기초를 닦고 내용을 제안할 것
- 2)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때, 정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것
- 3) 정책 수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정부를 지원할 것
- 4) 법에 규정된 방법과 정책을 수행할 때, 행정부를 지원할 것
- 5)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인식이 대중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

☞ 또한, 법상 규정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개의 중간 실행 조직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음: 상띠에, CQCM

○ 사회적 경제 위원회의 역할

▶ 사회적 경제 위원회는 'Panel of Social Economic Partners'로서, 경제혁신 에너지부 장관에게 사회적 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임

▶ 기본법에 규정된 '리뷰 메커니즘'에 따라 경제혁신에너지부 장관은 10년마다 정부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실행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주요 보고 내용은 사회적 경제 현장의 변화(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기본법이 어떤 식으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

▶ 리뷰 메커니즘에 따라 작성된 첫 번째 보고서는 '2020년'임. 기본법 자체 조항에 대한 수정안은 제출되지 않았고, 기본법 실행에 관한 가이드(Terms of Reference)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현재 수정 가이드에 대한 드래프트를 작성 중

○ 중간 실행 조직에 대한 설명

▶ 상띠에와 CQCM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정책의 실행자로서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대표 조직임

▶ CDRQ와 폴리코노믹 이라는 중간 지원조직도 있으며, 지역별로 각 15개와 22개가 활동 중. 호선을 통해 각 조직의 대표를 선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로는 FMQ, UMQ가 존재

- (질의) 2020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리뷰를 추진하였는데, 법 제정 후 10년이 아닌 8년만에 리뷰를 한 이유는?

답변

☞ 가장 첫 번째 리뷰 보고서여서 조금 서두르게 되었음. 앞으로는 2019년을 기준으로 10년 주기로(2029년, 2039년...) 추진하기로 함

- (질의)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Social Enterprise’라 일컫는데, 퀘백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답변

☞ 사회적 미션을 가진 조직은 모두 Social Enterprise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음. 보다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할 때는 ‘Social Economy Enterprise’라는 단어를 사용함

- (질의) 사회적 경제 위원회의 개최나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변

☞ 패널을 소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권한은 장관에게 있으며, 이를 준비하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도 존재. 실무위원회가 사회적 경제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에 대한 기획안을 먼저 작성해서,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장관이 승낙 및 위원회를 소집하는 구조임

☞ 주요 안건에 대한 제안, 정리 등 많은 사항이 실무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장관은 주로 보고를 받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편

- (질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답변

☞ 1996년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성과를 이뤄냈고, 그 실적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있는 많은 조직도 굉장히 만족해 했음

☞ 이러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각 정당들 사이에서도 안정적이고 깊게 형성되어 있었음

☞ 1996년 이후 정권 교체가 3번 정도 있었는데, 기본법의 토대가 흔들릴 만한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음. 각 정부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약간씩 수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합의와 컨센서스 수준이 높은 편

- (질의) 기존에 협동조합법이 있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추가된 것인데, 협동조합법으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혁신이 실현되었는지? 기존의 협동조합법으로 사회적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닌지?

답변1

- ☞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이 어떠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이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성화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임 즉,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차이점임
 -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 등이 있음. 정부의 역할을 한 부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여러 부처가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답변2

- ☞ 사회적 경제 법에는 모든 정부 부처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퀘백 주정부의 주요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주정부는 주관부처로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각 부처의 해당 부서/관련 부서에 전달, 공유하고,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그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해 주고 있음
- ☞ 이러한 모든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잘 운영되도록 부처간 위원회를 통해 움직이고 있음. 사회적 경제는 가족, 교육, 환경 등 거의 모든 부처에 어떠한 방식으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음
 - * 부처간 위원회는 실무자 수준에서 소집·개최함

- (질의) 사회적 경제 액션플랜(Action Plan)은 어떤 식으로 수립되며, 어떻게 검토되는가?

답변1

- ☞ 퀘백은 5년 마다 사회적 경제 액션 플랜을 수립하며, 사회적 경제 섹터 (샹띠에, CQCM) 및 각 부처의 관련 부서에서 기획단계부터 참여함
- ☞ 명시되는 주요 내용은, 5년 동안 정부가 수행할 정책이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각 부처의 장관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답변2

- ☞ 현재 우리 부서가 중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국회 보고용으로 대외 공개는 하지 않음
- ☞ 2025년 종료되는 이번 액션 플랜은 25가지의 정책 수단이 열거되어 있으며, 재정 지출은 약 1억 3,700만 달러, 투자는 5억 2천만 달러, 그리고 3,500여개의 세부 활동 내역이 규정되어 있음
- ☞ 정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투자 효과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의 5배 정도의 효과를 창출한다고 봄(1달러 투자하면 약 5달러의 효과)

○ (질의) 투자 규모가 상당한데, 민간 자금과 합친 금액인건지?

답변

- ☞ 정부가 사회적 금융 기관을 통해서 투자한 부분을 모두 합해서 말한 금액임. 일반적으로 주정부의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추후 회수를 전제하는 것임
- ☞ HR, 마케팅, 전략 수립, 비즈니스 플랜 등에 해당하는 액션 플랜은 재정 지출에 해당

○ (질의) 다양한 액션 플랜을 추진 중인데, 우선 순위가 있다면?

답변

- ☞ 여러 액션 플랜 중 특히 4가지 요소가 퀘백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함
 - (1) COVID19 기간에 가장 부각된 이슈로, 식량 안정성 문제: grocery 등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가 주민들에게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식량 자급의 문제
 - (2) 환경문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순환 경제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안·실행
 - (3) 인구구성 문제: 노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4) 기술과 혁신 부분: 사회적 경제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과 혁신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지원하며, 이는 퀘백 경제 전체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함

○ (질의) 사회적 경제 관련 최신 통계 자료가 공유 가능한지?

답변1

- ☞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에 발간한 퀘백 사회적 경제 통계 개황이 존재(이런 류의 통계집으로는 처음 발간한 것이며,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들의 실적을 통계로 정리, 불어·영어 버전)

답변2

-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약 1만 1천개이며, 매출액 총합은 470억 달러로 파악
- ☞ 리테일(소매), 트레이드(무역), 농업 등 업종별 규모, 비영리 조직의 회원, 협동조합의 회원 등 숫자, 각 조직이 어떤 사회적 미션을 갖고 활동하는지 등 심도 깊은 내용까지 확인 가능
- ☞ 통계의 작성은 외주 형태가 아닌, 국립통계청을 통해 직접 작성함 (단, 전수 조사가 아닌 전통적인 통계 기법에 의한 표본 조사 방식)

- (질의) 위의 조사가 기본법 제정 이후의 첫 조사인 것인가? 2013년 전에도 각 분야별 통계 조사가 있었는지?

답변

- ☞ 2001년 전까지는 협동조합 쪽에서 조사가 있었으나, 비영리 조직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이 되지 않았던 상황
- ☞ 2001년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와 같이 통계적 기법에 의해 조사한 것이 아닌 러프(rough)한 수준의 자료 수집. 즉, 본 형태와 같은 통계 조사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 할 수 있음

- (질의)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를 5배 효과로 본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

- ☞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임.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경제뿐 아니라 퀘백 주정부의 다른 모든 정책에 관해서도 경제 효과 평가를 추진함. 즉, 정부가 말하는 '5배 효과'는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 효과를 평가(Evaluation)한 값임

- (질의) 정부 예산(1억 3,700만 달러 수준)은 어떤 방식으로 수립된 것인가?

답변

- ☞ 사회적 경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각각이 필요한 예산을 제출·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취합하여 예산이 짜여지는 구조로, 한국과 유사한 방식임
 - 예를 들면, 교육 관련 부처에서 00원, 가족 관련 부처 00원... 등을 취함

○ (질의) 액션 플랜의 평가 및 보고 절차는 어떠한지?

답변

☞ 평가 보고서 작성 → 평가 리포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리뷰 및 각 부처에서 보고서 코멘트 작성(개선 계획 등 포함) → 최종안 정리 → 장관 보고 → 장관이 국회 보고
*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 없어도 ‘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완료

○ (질의) 5년 단위 액션 플랜을 수립하면서, 5년 짜리의 예산이 수반되는 형태인데, 국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2

☞ ‘액션 플랜’ 자체가 국회에 보고되는 것은 아님. 액션 플랜에 따라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정리하여 재정부 장관(Finance Minister)에게 보고. 퀘백은 경제혁신 에너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두 장관이 합의 하에 예산이 결정
☞ ‘액션 플랜’ 보고 대상은 국무회의로, 주지사 및 주정부의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 회의에서 액션 플랜이 승인되는 형태

○ (질의) 우리 나라 또는 미국처럼, 일반 영리 기업이지만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취급하는지?

답변

☞ 퀘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거의 대부분 비영리 조직으로, 사회적 인식 또한 비영리 조직으로 이해되고 통용되는 편임. (일부 있기는 함)

7

퀘백 협동조합 총연합회(CQCM)



□ 기관개요

- 퀘백 협동조합 총연합회 : CQCM
 - 퀘백 협동조합 총연합회는 3차 조직으로서, 업종별(섹터별) 연합회의 연합회라 할 수 있음(15개의 업종별 연합회 및 11개 지역개발 협동조합으로 구성, 1차 조직은 개별 협동조합)
- 주소지: 1500 Rue Métivier bureau 210, Lévis, Quebec
- 연락처: 48. 835. 3710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cqcm.coop/>
- 면담자: Bianca Chartre (Public Affairs Advisor)

□ 주요 논의내용 및 질의응답

- CQCM 기관 소개

▶ CQCM은 3차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1차 조직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당사자, 2차 조직은 업종별(섹터별) 연합회이며, 업종별 연합회의 총 연합회가 본 조직임

- ▶ 즉, CQCM이 협동조합 영역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쪽과 협동조합 섹터 간 협의가 필요할 때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음
- ▶ CQCM과 유사한 기관으로, 캐나다 전체의 협동조합 및 공제 운동을 대표하는 CMC(Cooperative and Mutuals Canada)가 존재함. CMC 역시 전체 연합회로서 연방정부와 주로 의사소통함

○ CQCM 주요 역할 5가지

- ▶ 퀘벡 지역의 협동조합 대상 자문(Consultation) 서비스 제공
- ▶ 정부쪽을 대변하는 대표 역할
- ▶ 협동조합 창업 및 성장 등 협동조합 발전 지원
- ▶ 협동조합 대상 프로모션과 커뮤니케이션
- ▶ 협동조합 대상 교육, 학교 및 현장, 일반 대중 대상 교육 실시
 - * 교육, 커뮤니케이션 등은 CQCM을 통해 설립된 에페(Effet)을 통해 추진함. Effet은 나비효과할 때 '효과'라는 뜻으로, 별도의 홍보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표임

○ CQCM과 다른 연합회와의 상호작용

- ▶ 캐나다 전체 협동조합연합회인 CQCM이 있고, 사회적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상띠에가 존재, 두 기관은 각각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섹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
- ▶ CQCM은 ACI(ICA의 프랑스어 표현) 산하에서 활동
- ▶ CQCM은 회원들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회원조직인 연합회들을 통해서 소통함
 - * (예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조직이 있다면, CDRQ를 통해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CDRQ를 통해 CQCM과 상호작용하는 형태
- ▶ 즉, CQCM은 업종별 연합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1차 협동조합(당사자 조직)과의 상호작용은 2차 협동조합인 업종별 연합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

○ (질의)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 ☞ CQCM은 협동조합 섹터 전체를 대표해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음
- ☞ 협동조합 영역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얘기할 의제, 안건이 있으면 경제혁신에너지부의 Collective Enterprise 부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함 (지난 30년간 지속해옴)
- ☞ 이렇게 정부와의 파트너십 계약의 근거는 사회적 경제법에 명시되어 있음. CQCM과 상티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파트너 실행자로서 지정
- ☞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정부의 액션 플랜 수립 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한 것, 2024년까지의 미래 운영 계획 수립 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Core Construction(공동 실행) 등이 있음
- ☞ 정부와의 파트너십 계약은 2004년 처음 시작하여 5년 단위로 갱신 중. 계약 내용 중 스타트업(창업 지원) 관한 부분은 대부분 CDRQ에서 맡아서 각종 지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됨
- ☞ 지난 5년간 약 1,800개의 기업에 대해 창업 지원 또는 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질의) 정부와의 액션 플랜 수립 과정에서 또 추진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1

- ☞ 협동조합 섹터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협동조합 방식의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함. 또 이를 위해 필요한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것도 지원함
- ☞ 사례1)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건강협동조합(한국의 의료사협과 비슷)의 중요성 - 기존의 의료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을 강조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음을 제안
- ☞ 사례) 현재 퀘백은 2~3개의 대형 통신사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이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동조합 방식이 도입된다면,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신 음역 지역 보완 및 통화품질 개선 등 통신 서비스 전체의 질을 향상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임

답변2

- ☞ 경제혁신에너지부에서 CQCM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기도 함
- ☞ 주요한 연구 중 하나로 ‘협동조합 생존률’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음. 기업의 창업 이후 10년 기점으로 봤을 때, 일반 기업 대비 협동조합의 생존률이 2배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 즉, 위기에 놓인 협동조합이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향후 생존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질의) 추가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 ☞ ‘Mutualization’이라는 것은 검토 중임. Mutualization이란, 중소 규모의 독립적인 영리법인들이 협회를 결성한 다음, 이 협회를 협동조합화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협동조합인 협회를 통해 브랜딩, 마케팅 등을 같이 추진할 수 있고 이는 소기업들의 상부상조를 통해 생존성을 높이는 방법임.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유사함
- ☞ 또다른 사례는 ‘어르신 돌봄센터’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협동조합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임

○ (질의) CQCM의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 요청

답변1

- ☞ CQCM의 회원으로는, 주 단위의 연합회들, 금융기관 협동조합 연합회, 농업 협동조합연합회, 장례 협동조합연합회, 통신서비스 협동조합연합회, 임업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있음
- ☞ 퀘백 북쪽을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생필품 소비점(Grocery) 및 소매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와 공제회가 있음
- ☞ 2020년부터 시작된 주요한 변화가 있었음. 당시 연합회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사회 역시 연합회 회원만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2022년부터 모든 협동조합(1차 협동조합 포함)이 CQCM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이사회 임원 또한 가능하게 됨

답변2

- ☞ 노동자 협동조합 영역의 경우, 3가지의 대표 연합회가 있음. ①파라메딜 노동자 협동조합(구급차 운영), ②임업 협동조합(노동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③레저코업(노동자 협동조합 창업지원). 이 각각의 연합회가 CQCM 이사회 임원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셋 중에서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연합회 대표 1인만이 이사회 임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됨
- ☞ 이는 굉장히 큰 변화임. 소속 연합회라고 해서 무조건 임원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사회 선출 내규에 따라 반드시 선거를 실시해야 하게 됨

- (질의) 위와 같이, CQCM의 멤버십과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 CQCM 역할을 홍보할 때, 3천 개의 협동조합을 대변하는 협동조합 영역의 대변자로서 포용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본인 업종의 연합회를 가지고 있는 많은 회원이나 개별 협동조합들로서 CQCM에 연결고리가 없는 조합들은 CQCM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즉, 보다 포용적이고 세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였음

- (질의) 이사회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 ☞ 이사회 구성원은 CQCM의 총 5개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음
 - ① 이사회 내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Executive 커뮤니티, ② 거버넌스 커뮤니티(운영위원회로서 의사결정 관련 활동 수행), ③ HR(인사위원회) 커뮤니티, ④ 커뮤니티의 커뮤니티(공동체 위원회), ⑤ 감사 및 위험관리 위원회임
- ☞ 공동체위원회는 1년에 3~4번씩 퀘백 전역의 모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함. 올해 논의했던 주요 안건으로는 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 ②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 특히 환경 문제, ③ 각 지역별 협동조합 교육 및 PR 담당자의 역할 논의 등

○ (질의) 퀘백의 공제조합에 대한 설명 요청 드림

답변

- ☞ 현재 CQCM 멤버로 가입된 공제회는 프로뮤티엘(Promutel)이라는 농업 관련 보험회사 1개이며, 이는 퀘백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공제회로 분류되는) 20개 보험회사 중 하나임
- ☞ 라캐피탈과 에스엘스키어, 두 회사도 멤버였으나 현재 합병 절차 진행 중이며, 합병 이후 재가입 예정
- ☞ 유비어시랑스라는 보험회사는 현재 CQCM 가입을 논의하고 있음
- ☞ 공제조합법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보험법에 의해서 규율됨. 대표 공제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프로뮤티엘과 합병 진행 중인 2개소 정도 뿐임

○ (질의) 퀘백의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설명 요청 드림

답변

- ☞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어르신 돌봄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주는 'ESSAB' 연합회가 있음
- ☞ 의료 협동조합 중 대표 사례로는 '쌈싸'라는 곳이 있음. 일반적으로 기피 대상자인 HIV 양성보균자와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협동조합임. '앙크라지'라는 심리적·정신적 문제 관련 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의료협동조합도 있음
- ☞ 사회복지 관련 분야 학생들이 직무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디이엠'이라는 협동조합도 존재

○ (질의) 정부와 협업하여 추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답변1

- ☞ 1997년 다중이해 협동조합과 연대(Solidarity) 협동조합을 도입한 것이 제도 혁신 노력 중 하나로 생각됨
- ☞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다중이해 관계자 형태의 그로서리(Grocery)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형태의 조합원을 허용함으로써 식료품점, 소매점 등을 만드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고, 다중이해 관계자 형태의 의료 협동조합 역시 설립 및 운영에 더 유리한 점이 생김

답변2

- ☞ 그 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투자자 협동조합’이 있음. 예전의 노동자 협동조합 중 지분인수 협동조합과 달리, 노동자처럼 이해 당사자가 아닌 순수한 투자자로서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의 투자에 돈을 모아서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투자자 협동조합이 논의 되는 중
 - 지분인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의 51%를 인수하는 경우로 그 돈을 협동조합 형태로 모아서 하는 것. 즉, 투자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인수하는 것이 Worker Share-Holder Cooperative 형태의 협동조합임.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돈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모으는 형태

- (질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상 CQCM은 정부의 파트너로서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5년 단위 계약을 맺는 이유는? 법에 의무 조항을 넣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은지?

답변

- ☞ 캐나다의 경우,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조직들은 5년 단위 계약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 또한, 매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5년, 10년 단위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상황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 (질의) 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운영자금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가?

답변

- ☞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됨. CQCM이 정부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에 따른 계약을 통해 확정되며, 양측이 서명하는 계약서 상에 비용에 대한 것이 명시됨

- (질의) CQCM 산하의 CDRQ를 이전에 방문하였음. 운영비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정부 재정으로 조달한다고 들었는데, CQCM도 그러한 구조인지? 회원으로 받는 회비는 없는 것인지?

답변

- ☞ 5개년 계획을 통해 규정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사업 시행자들이 해당 비용을 집행하게 되는 것임. 예를 들어,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파트너십은 CDRQ에 있다면 그 돈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 역시 CDRQ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데 CQCM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 CQCM은 해당 비용을 전혀 쓰지 않음
- ☞ CQCM의 유지비는 전적으로 회원들로부터 나오는 회비이며, 정부의 돈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거의 제로임

- (질의) 캐나다의 협동조합은 업종별 연합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지? 자발적 가입이라면, 연합회 가입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 연합회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연합회에 가입할 경우 회원조합이 갖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는 형태이며, 약 90% 수준임
- ☞ 다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업종별 연합회에 속해있지 않아도 2022년 이후부터는 CQCM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음

- (질의) CQCM의 회원 조합간 공동 활동이 있는지?

답변

- ☞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① 10월 협동조합 주간에, 의회 및 정부의 주요 공무원, 협동조합 영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을 초대하여 갈라이벤트를 개최함. 1년 동안 협동조합 영역에서 공헌이 있던 사람에게 상을 주는 행사 등이 있음
- ☞ ② ‘렐레 코오퍼레이티브’라는 CQCM 주관 행사가 있으며,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개최함.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접하고 배워볼 수 있게 하는 행사
- ☞ ③ ICA 차원에서 하는 ‘국제 협동조합의 날(7월 1일)’을 맞이하여 퀘벡 내에서 자체 행사를 운영함

- (질의) CQCM과 CDRQ 간의 관계성은 어떠한지? CQCM이 CDRQ의 인사나 재정 관련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답변

- ☞ CDRQ와 CQCM의 공식적(법적)인 관계는 CDRQ의 이사회에 CQCM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CDRQ가 CQCM 거버넌스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음
- ☞ CQCM이 협동조합 발전 계획을 정부와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정하게 되며 그 내용의 주된 실행 주체는 CDRQ가 담당
 - 예를 들어, 5개년 계획 중 어떤 연도에 '건강 협동조합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결정되면, 그 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CDRQ가 되는 것이고, 이 결정의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CQCM임
- ☞ CQCM은 194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CDRQ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음. 두 기관은 파트너십 형태이지, 상하관계나 소속관계로 규정하기 어려움

- (질의) 그렇다면 정부와 CQCM이 계약(협약) 관계이듯이, CQCM과 CDRQ가 협약 관계로 보아도 되는가?

답변

- ☞ CDRQ가 CQCM의 Development branch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CDRQ가 CQCM의 소속 또는 하위조직이 절대 아님
- ☞ 약 600개의 회원 조합이 CDRQ의 회원이며, 회원 중 선출된 사람들만이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 가능함. 이 이사회에는 정부나 CQCM 모두 포함 되어 있지 않음

- (질의) CQCM 회원 중 개인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이나 기타 유사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 ☞ CQCM 또는 연합회 차원에서 공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 다만, '코오퍼레이터스'라는 보험회사 서비스를 회원 및 개인 조합이 이용 가능함
- ☞ 현재 협동조합 영역에서 내부 직원 복지를 위한 단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자르딩이나 외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제공함

III. 시사점

- 주정부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Action Plan)' 수립과 정책 평가, 몬트리올시청의 '사회 혁신 실천 전략' 수립
 - 퀘벡 주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사회적 경제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는 10년 단위로 추진
 - 계획 수립 및 평가 시에는 여러 부처와 현장 대표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
 - 몬트리올 시청의 사회 혁신 실천 전략은 3년 단위로 수립되며, 코로나19 이후로는 혁신보다는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시청은 정부와 현장 조직의 '중간자(Intermediary)'로서, 협력 기관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정책 실현 및 현장 지원 추진

시사점

-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은, 현장 조직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현장 조직들과 '상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

- 협동조합 총연합회(CQCM) 및 중간 지원조직(CDRQ) 활성화
 - 퀘벡 협동조합 총연합회(CQCM)은 업종별 연합회(2차 조직)의 연합회이며, 법률에 의해 현장 조직의 대표자로 인정
 - 정부·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의 대부분은 회비로 운영
 - 협동조합 중간 지원조직(CDRQ)는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정부 정책의 실현 기구로, 재정의 90% 이상은 정부 자금

시사점

- ☞ 퀘벡은 정부 및 지자체와 협동조합연합회, 중간지원기관, 당사자조직 간 활발한 연대·협력 구조를 갖추고 있음
- ☞ 정부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간지원기관의 공익성·대표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주요 파트너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조합원·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조직

- 학생의 주거문제를 학생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UTILE은 정부의 도움 없이 Bottom Up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
 - 캐나다의 Social Economy Support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학생 주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음
 - 특히 캐나다 최초로 ‘주거 취약(지원)계층’에 학생을 포함시킨 사례로, 안정적 주거권 확보를 통한 가계 부담 감소 등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
- 캐나다(몬트리올)의 오래된 정부 지원정책 중 하나로, 사회주택 지원이 있으며, Batir Son Quartier는 대표 지원조직 중 하나
 - 40년의 오랜 역사 속에 약 15천채의 주택개조 작업 및 600개 프로젝트를 수행,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 현재는 정부 지원정책에서 사회주택이 다소 후순위로 밀렸으나, 현장의 다양한 조직이 여전히 사회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
-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두 명의 활동가와 지역 주민이 협업하여 시작한 Petit Champlain은 코로나19 위기를 협동조합답게 이겨냄
 - 그간 모아둔 적립금을 조합원의 임대료 절감에 활용하는 등 본인들의 속도와 가치에 맞게 협동조합을 운영 중

시사점

☞ 우리 나라에 동일한 사회서비스 지원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

IV. 첨부자료(사진)

1일차: CDRQ ①



1일차: CDRQ ②



1일차: UTILE ①



1일차: UTILE ②



2일차: 몬트리올시청 사회적경제과 ①



2일차: 몬트리올시청 사회적경제과 ②



2일차: Batir Son Quartier ①



2일차: Batir Son Quartier ②



3일차: Petit Champlain ①



3일차: Petit Champlain ②



4일차: 퀘백주정부 ①



4일차: 퀘백주정부 ②



4일차: 퀘백주정부 ③



4일차: 퀘백주정부 ④



4일차: CQCM ①



4일차: CQCM ②

